

# 와인 ‘오픈런’에 대한 단상... “사랑은 식지 않았어!”



안 상 미 작가의  
Why, wine



지난 2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그레이트 와인스 월드 서울 2024’ 현장.



왼쪽부터 돈 멜초 2021 빈티지, 카스텔로 디 브롤리오 2020 빈티지. /안상미 기자

이미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행사장 돌레를 돌고도 꺾어져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부근까지 이어졌다. 지난 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그레이트 와인스 월드 서울 2024’에 참석하려는 이들이다.

작년에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지라 30분 전에 일찌감치 도착했는데 이런 ‘오픈런(시작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것)’은 예상치도 못했다.

### ◆ 와인시음회에 ‘오픈런’

오픈런의 대상은 다름아닌 와인 시음회다. 와인 인기가 시들하다더니 돈을 내는 유료 시음회, 그것도 1인당 14만원이나 하는 입장료에도 사람이 몰렸다. ‘그레이트 와인스 월드 서울 2024’는 와인업계에서는 스타급인 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이 주최하는 시음 행사다. 원래 매년 열리도록 기획됐지만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작년년부터 다시 열렸다. 전 세계의 뛰어난 와인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다. 올해는 150개 와이너리가 260여종의 와인을 들고 왔다. 제임스 서클링은 시음회 도중 단상에 올라 “지난 몇 년간 한국 와인시장의 성장세는 경이로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서클링은 아시아 투어의 첫 행선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그만큼 향후 전망도 밝게 본다는 얘기다. 한 모금에 감탄을 자아내는 와인도 많

았지만 일단 이번 시음회의 가장 큰 성과는 다름아닌 한국인들의 와인에 대한 식지 않은 애정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 와인 전성기를 위한 힌트 식지 않은 사랑은 확인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사이가 뜨뜻미지근했던 이유는. 원인을 파악한다면 와인을 다시 전성기로 이끌 해법도 나올 터. 첫번째 힌트는 검증된 와인에 대한 환호다. 시음회에는 제임스 서클링 포인트 92점 이상을 받은 와인만 참여할 수 있다. 제임스 서클링 팀은 작년 한 해에만

3만9000종에 달하는 와인을 직접 시음하고 점수를 매겼다. 올해 행사에는 대부분 95점 이상 받은 와인들이 나왔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이날 선보인 와인 가운데 수십만원원을 호가하는 비싼 와인도 물론 많았지만 그만큼 자리를 채운 것이 가성비, 또는 합리적인 가격에 수입되고 있는 와인이었다. 99점을 받은 돈 멜초 2021빈티지는 칠레 와인 명가 비나 콘차이토로의 브랜드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양윤주소 물리에가 직접 디켄팅을 해서 따라줬다. 돈 멜초는 프리미엄 포도밭에서도

개성에 따라 구획을 나눠 양조한 뒤 매년 최고의 균형을 이루도록 블렌딩 비율을 바꾼다. 복합적인 향은 물론 좋은 산도와 부드러운 타닌이 길게 이어진다. 이탈리아 와이너리 리카솔리의 ‘카스텔로 디 브롤리오’는 최상급 키안티 클라시코 와인이다. 좋은 해에만 와인을 만드는데 세 곳의 프리미엄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를 섞어 균형감이 뛰어나다. 2020 빈티지는 96점을 받았다. 두번째 힌트는 다양성이다. 기존 평론가들이 보르도 와인이나 레드와인에 주목했다면 제임스 서클링은 시야를 넓혀 다양한 와인 산지를 알렸고, 화이트 와인의 진가를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시음회에서는 기존 와인 중주국과 함께 포르투갈, 그리스, 캐나다, 세르비아, 우루과이 등의 와인도 맛 볼 수 있었다. 김수환 금양인터내셔널 부사장은 “프리미엄 와인을 찾는 수요와 함께 가성비 좋은 와인이나 MZ세대를 중심으로 도수가 낮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와인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진심을 탐하는 빛나는 인터뷰어

‘진심의 탐닉’은 ‘씨네21’ 김혜리 기자의 인터뷰집이다.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에 관한 기억의 총합이다.’는 경구에 일말의 진심이 담겼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인터뷰어는 대체 사람들과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걸까. 궁금한 마음에 책을 집어 들었다가 인터뷰이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인터뷰어를 만나게 됐다. 책의 여는 글에서 김혜리 기자는 자신을 인터뷰하는 ‘인터뷰어’인 동시에 본인의 질문에 답하는 ‘인터뷰이’로 등장한다. 날카롭지만 조심스러운 질문, 명료하고 섬세한 답변에서 독자들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작가의 초상화를 마음속에 그려보며 슬며시 미소 짓게 된다. 인터뷰어이자 인터뷰이인 김혜리 기자의 자문자답은 펍 흥미롭다. ‘좋은 인터뷰어의 자질을 갖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터뷰 연재를 계속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사람들은 저마다 발각되기를 기다리는 가벼운 비밀을 품고 있다”고 답한다. 작가는 인터뷰이의 이러한 마음을 ‘적당한 때와 장소에 적당한 손길이 매듭에 닿으면 스프링 열리는 보따리’로 묘사한다. ‘인터뷰’라는 단어를 장면으로 표현한 부분도 기억에 남는다. 상대방의 정원 한구석에 앉아 울타리 밖과 집안을 번갈아 넘겨다 보며 조심스레 주인의 성격을 짐작해 보는 한편, 밖으로 내쳐질까 봐 불안하면서도 겁



진심의 탐닉  
김혜리 지음/씨네21북스

자기 실내로 초대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며 마음 졸이는 모습이 떠오른다. 김혜리 기자는 전체 인터뷰 과정에서 ‘섭외’가 가장 어렵다고 말한다. 진정한 의미의 섭외는 약속을 얻어내 인터뷰 장소에 마주 앉은 다음에도 한동안 계속된다. 인터뷰 초반에 내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당신을 알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말과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동원해 인터뷰이에게 전달하고, 상대가 이 메시지를 접수해 소박하게나마 신뢰를 품을 때에야 비로소 섭외에 성공한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인터뷰 말미에서 김혜리 기자는 수줍은 고백을 건넨다. “모든 인터뷰이들은 한때 제 머리를 온통 점령하고 연후에도 오랫동안 그리움을 가졌다는 점에서 연인과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464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다정한 거인

남종영 지음/공출판

거대한 몸짓, 뛰어난 지능, 탁월한 운동 능력을 갖춘 고래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누이트의 여신 세드나 전설에, 구약성경 ‘요나서’에, 피노키오 이야기에 고래는 중요한 역할로 등장한다. ‘바다의 괴수’였던 고래는 바스크족이 상업적 목적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학살과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고래기름과 고기, 경랍을 얻기 위해 포경산업에 뛰어든 제국주의 열강들은 전 세계 바다를 핏빛으로 물들인다. 책은 세상 끝에 사는 외로운 괴수, 산업혁명의 등불을 밝힌 경제적 자원, 이윤을 창출하는 수족관의 엔터테이너 고래가 어떤 인격을 지닌 권리 주체와 기후변화 해결사로 거듭났는지 설명한다. 452쪽. 2만9000원.



### 내일 또 만나, 깃대종

김명철 지음/북플랫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생태계의 여러 종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동식물을 의미한다. 책은 생물 다양성 보존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깃대종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깃대종이 인간의 행동과 동물, 환경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탐구

한다. 작은 곤충들은 꽃가루 매개자 역할을 하며, 코끼리는 숲의 과밀화를 막아서 건강한 자연을 유지하고, 늑대와 호랑이는 초식동물의 과도한 번성을 막아서 숲과 초원을 보존한다. 저자는 사람들이 깃대종 동물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애정을 쏟다 보면, 결국 친환경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316쪽. 2만원.



### 뽀뽀를 찾아서

수전트. 하일렌 지음/이길하, 이현주 옮김/비아토르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제국 사회 여성들의 삶이 획일적으로 억압적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추측과 달리, 책은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당시 엘리트 여성들이 상당한 정도의 주체성, 법적 권리, 경제적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 준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자매 뽀뽀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다.” 성서학자인 저자는 로마서 끝 부분의 두 절을 실마리로 초기 교회에서 여성이 맡은 역할을 연구하며, 당대 여성들이 살고 행동하고 존재했던 사회 역사적 배경을 탐구한다. 270쪽. 1만7000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구영배 “미정산 사태, 발생한 뒤 인지”...경영진 구속 기로 /사진 뉴스스  
▲조국 가족,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상 대 2심도 승소

▲코인 환전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중계기관리...대법 “처벌 가능”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 요구...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배상 일부 승소...“한이 한겹 더 쌓여”  
▲검찰, ‘필포폰 추가기소’ 야구선수 오재원에 징역 4월 구형 /사진 뉴스스